

생태 탐방 코스·축제 발굴...관광벨트로 지역경제 살린다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⑨ 지자체의 노력-(2) 광주 북구

- 5가지 테마 버스투어·관광지도 제작
- 5·18 민주묘지~무등산 탐방로 연결
- 무등산 수박·한약초 재배농 육성 지원
- 자연 휴양림 조성 등 경제가치 창출

광주시 북구가 무등산 국립공원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다.

북구는 무등산 및 광주호 주변의 다양한 생태·문화자원과 지역 내 문화시설 및 관광 명소 등을 연계한 무등산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연차적으로 무등산 탐방코스 개발 및 정비와 생태문화 관광환경 조성, 시민참여 관광진흥 사업, 관광진흥 인력 및 제도기반 구축, 전통 민속 및 문화예술 행사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무등산 국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개발계획에 나선다.

광주의 산 '무등산'을 국립공원의 위상에 걸맞게 도심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생태·관광 등 지역과 마을을 이어 무등산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연자원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북구는 2015년까지 예산 5700만 원을 들여 탐방 코스 개발(예향·의향 및 종절·생태 및 문화테마 등) 및 버스 투어, 관광지도 제작에 나선다.

탐방 코스에선 버스 투어가 진행되는데, 한 테마당 4회씩 총 12회에 걸쳐 버스 투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북구 생태·문화자원을 추가한 관광지도도 2000장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국립 5·18 민주묘지 탐방로 정비도 추진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 탐방로에 가로수 길을 조성해 무등산과 탐방로와 있다는 복안이다.

구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광주 교도소~국립 5·18 민주묘지 간(18km 구간) 탐방로에 이팝·다년생 초화류 등을 심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청풍원 버스정류장 구간(8.9km)에 역사·문화·관광을 테마로 한 자전거도로도 조성된다. 예산은 15억 원이다.

북구는 특히 천연기념물 왕버들의 생태보존과 가사문화권, 김덕령 의병장의 충효정신을 접목해 생태·인문학적 축제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왕버들 인문생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12월 말까지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북구 충효동과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대에서 왕버들 문화제·왕버들 사랑 트래킹·왕버들 그리기 및 글쓰기 대회·음악회·야외 인문학당·당생태예술 소풍·의병장 김덕령 스토리텔링 지도 제작 및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는 또 2015년까지 무등산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무등산 수박 육성 지원 사업과 한약초 마을공동 공간 조성사업, 치유테마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치유테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북구 금곡동 풍암정 주변에 산림체험코스과 자연관찰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공모사업도 진행하는데, 무등산권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사업과 관광콘텐츠 공모사업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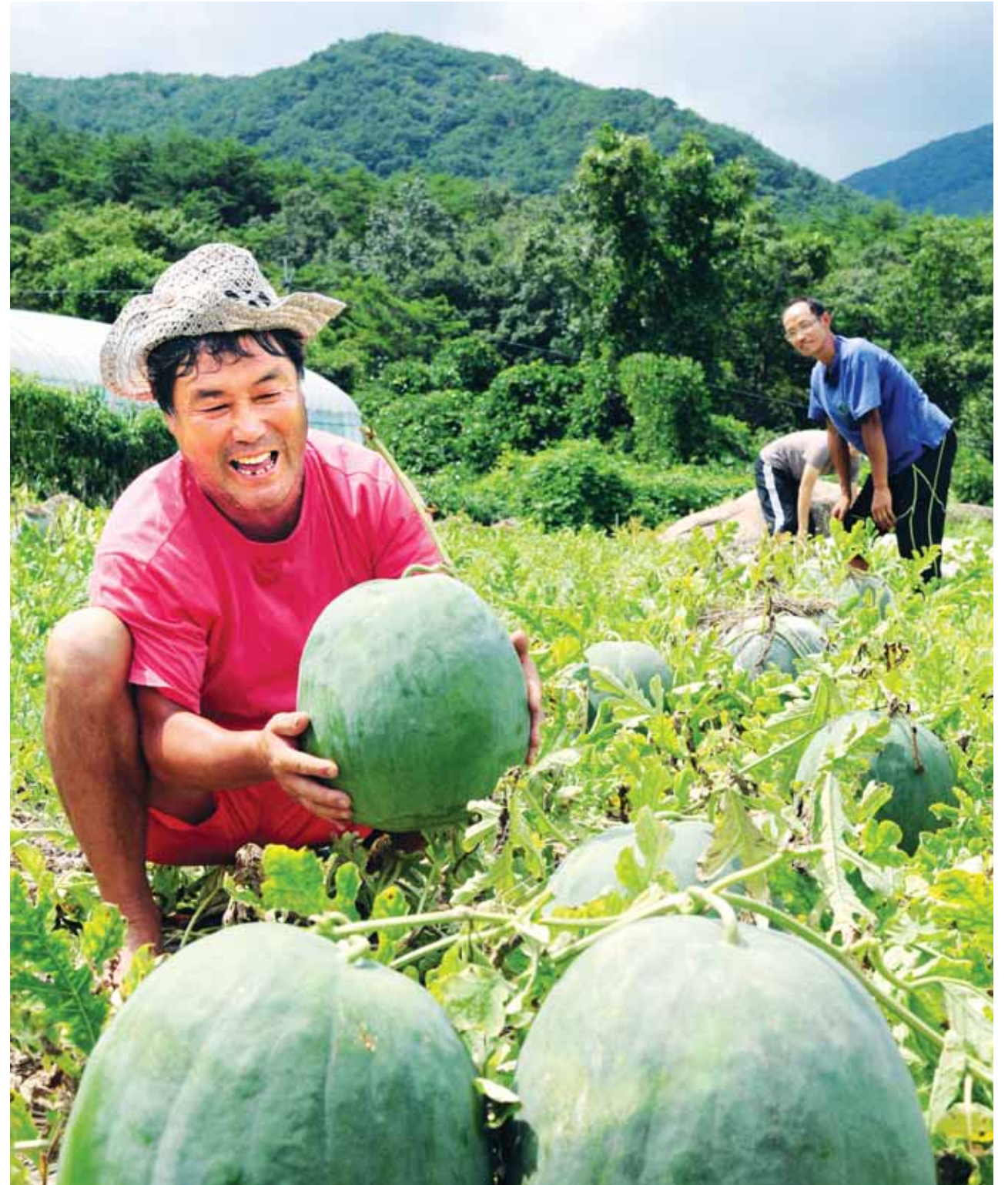
앞서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있는 북구 충효동 평촌 마을이 '명품마을'로 지정돼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다양한 소득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원금 10억 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경관 디자인 개발, 마을 공동 농가민박·농장 조성, 특산물 판매장 구축, 전통 체험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무등산 국립공원을 적극 활용,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휴식 공간 확충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연기념물인 충효동 왕버들을 비롯한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관광벨트와 등 관련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alee@kwangju.co.kr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기술에서 지난해 8월 농민들이 광주 대표 특산물인 무등산수박(일명 푸랭이)을 수확하는 모습. 북구는 국립공원 승격에 맞춰 오는 2015년까지 무등산수박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와 무등산 양정숙 조선대 E-Tonic사업단 교사

20년전 등반길 핑가족 기억 '생생'



양정숙씨가 지난 1991년 4월 어느 날 무등산 토끼등을 향해 등산하던 중 산 중턱에 앉아 잠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1992년 어느날 남편과 함께 총장사를 지나 무등산 끝자락 한적한 들녘에서 내려왔다. 모내기가 막 끝난 논을 끼고 산으로 오르던 중 코앞에서 '푸드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갈색을 띤 커다란 새가 날아올랐다.

주변을 살펴보니 수북이 쌓인 낙엽 위에 동자가 보였다. 폭신해 보이는 동지 속에는 메추리알보다는 크고, 달걀보다는 작은 암갈색의 껍질 아홉 개가 담겨져 있었다. 크기도 모양도 똑같은 알들이 보기만 해도 보물처럼 사랑스러웠다.

알을 품고 있는 어미꿩을 놀라게 한듯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껍질을 뒤로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껍질이 걱정돼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무정한 비는 계속해서 사흘씩이나 내렸다. 며칠 후 너무 궁금해서 그곳을 다시 찾아가다. 보호색을 입은 어미 꿩이 날아가지 않고 알을 품고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기쁨과 함께 흑시 꿩이 공격을 할까봐 두렵기도 했다. 꿩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가슴이 찔렁하고 내

려앉았다. 얼른 보니 알 하나가 동지 밖에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어미 꿩이 날아오를 때 발에 걸려 튀겨져 나온 모양이었다. 나는 그 알을 주워들고서 어떻게 날아올까 궁리했다. 그런데, 어미 꿩이 마치 알을 넣어주려는 듯 갑자기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어미 꿩이 자리를 비운 동지 속 알을 세어보니 떨어진 알까지 모두 열개였다. 지난번에는 아홉 개였는데 하나가 늘어난 것을 보니 그때는 알을 낳는 중이었나 보다.

그후 삼여 일이 지났을까. 우리 부부는 다시 산에 올랐다. 지금쯤 열 마리의 아기 꿩이 동지에서 오물오물 살을 부비며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를 기다리리라 상상하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장소에 다다르니 여기저기 어지럽게 깃털들이 널려진 채 빈 동지만 싸늘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새끼를 낳았다면 분명 그 자리에 알 껍질이 남아있을 텐데...'. 산 짐승의 공격을 받은 것일까. 꿩 가족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 빈 동지만 어루만지다가 착잡한 심정을 안고 산에서 내려왔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무등산을 오르내릴때면 그때의 꿩 가족이 떠오른다.

무등산 갤러리 김영태 작 'Shadow of Time - Mountain' (2013) 피그먼트 프린트

"광주의 모산(母山)인 무등산을 소재로 '시간의 그림자' 연작을 해오고 있다. 무등산은 어쩌면 광주의 시간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복해서 중첩되는 이미지를 통해 감추어져 있는 산의 이야기를 드러냄으로써 자연의 근원적 생명력을 한국화의 담묵(淡墨)과 같이 표현하고 싶었다."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